

전남 중부권

장흥 '매생이 초콜릿' 선풍적 인기

미네랄 풍부해 건강다이어트 식품 각광 하버바이오, 해태·CJ와 8억 납품계약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장흥지역 대표 수산물인 매생이를 원료로 한 초콜릿이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 매생이는 무공해 청정해역 갯벌 밑에서 생산해 미네랄이 풍부한데다 찰지고 부드러운 인근 타 군에서 생산되는 매생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3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매생이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가공·유통을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장흥군과 전남도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주)하버바이오가 '장흥군 매생이 특화사업'을 착공,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150억원을 투자, 매생이 초콜릿, 젤리 제품 등의 가공라인을 갖춘

공장을 준공,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주)하버바이오의 매생이 가공공장 준공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장흥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매생이의 일차 대량생산 및 취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연간 300t 이상 가공용 매생이 출하가 가능해져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에 매생이 초콜릿, 젤리생산에 들어갔으며, CJ와 매생이 초콜릿 17만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자체브랜드 개발은 물론 수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생매생이를 동결 건조시켜 미세분말로 상품화하는 가공라인 신설과 함양제품, 면역증강제품, 다이어트 제품 등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상품화 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매생이가 건강미용 식품으로 알려지며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해태, 캐밀리마트, CJ 등과 8억2000만원 납품계약에 오는 5일까지 납품완료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체는 지역주민 200여명을 채용, 24시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웰빙 매생이 으뜸산지의 지역적 위상 제고에 (주)하버바이오가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기업유치로, 생산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며 행정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생이는 주로 남도지방에서 사용하는 가늘고 부드러운 녹조류로 파래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겨울철에 주로 채취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친환경 가래떡 뽑기 분주한 방앗간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일 장흥읍 방앗간에서 친환경 쌀로 가래떡 뽑기에 분주하다. 장수를 상징하는 가래떡은 설날의 대표적인 계절 음식이며 떡국의 주재료로 사용된다. (장흥군 제공)

나주배 온라인 판매 소득 '짹짹'

'홍고추정보화마을' 1800만원 어치 팔아

나주시 '송촌 홍고추정보화마을'(scrp.invil.org)이 온라인을 통한 나주배 판매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계속하고 있다. '송촌 홍고추정보화마을'은 설날을 겨냥해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특관행사를 개최, 지난 29일 현재 판매액만 1800여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판매액 250여만원에 비교하면 7배에 달하며, 지난해 추석 판매액과 비교해도 2배에 달한다.

정보화마을에서 판매된 배는 농가 수취가격이 7.5kg(10과) 3만5000원, 7.5kg(12과) 3만원으로 공판청 출하 가격보다 높아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촌 홍고추정보화마을'은 지난 2008년 조성돼 현재까지 구매표객 자

료를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으며, 안전한 배송을 고려한 상품포장과 사후관리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특히 농가별로 품질좋은 배를 1차 선별한 뒤 이를 작목반과 정보화마을 관리자가 다시 선별하는 3차 선별과 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정수필 위원장은 "농가에서는 다른 출하처보다 좋은 물건을 내주고, 마을에서는 고객에게 홍보와 사후관리를 하는 노력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며 "올해 설에도 전국의 다른 정보화마을과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마련해 배와 한라봉, 홍고추 등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강진문화복지타운 카운트다운

5월 개관 앞두고 준비위원회 구성

강진군이 (가칭)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의 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개관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나섰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개관준비위원회를 열어 다산수련원 운영선(44) 전문위원을 위원장으로, 김동남 디자인팀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해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고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하도록 했다.

강진 문화복지타운은 강진을 남성리 일원에 대지 8449㎡·연면적 1만 6032㎡의 문화동과 복지동 2동(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화동에는 대공연장(718석)·소공연장(174석)·전시실(미술관, 화랑)이, 복지동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평생학습도서관·청소년시설·사

회단체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관준비위원회는 개관식 이후 문화복지타운 운영자문위원회로 자동 전환돼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타운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장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문화복지타운이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일 (가칭)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의 명칭 공모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가족상봉 기쁨 안겨 준 나주경찰

30년 소식 끊긴 50·60대 아들·딸 찾아줘 화제

나주경찰이 관내 보호시설 점검과정에서 30여 년간 가족들과 소식이 끊긴 채 살아온 50대 여자와 60대 남자에게 가족상봉의 기쁨을 안겨줘 화제다.

1일 나주경찰서에서 따르면 여성 청소년계 이자현 경장은 2010년도 4·4분기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관내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던 중 연고자 없는 2명을 발견했다.

무등정신요양원에 입소중인 이모(64)씨와 김모(55·여)씨로 이들은 각각 30여년간 연고자 없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였다.

나주경찰은 연고자 없는 이들의 신원을 어렵게 추적해 최근 가족들과 극적인 만남지리를 가졌다.

이씨 아들(33)은 그동안 아버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행방을 찾지못해 지난 2003년에는 TV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딸(31·여)은 "28년전 신병치료차 집을 떠났던 어머니가 소식이 없어서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전북

전주 비빔밥·한지 세계화 발돋움

市, 외식업체 LA무대포하우스와 MOU

전주 비빔밥과 전주 한지 등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한스타일 세계화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LA 다운타운에서 외식산업으로 성공한 LA무대포 하우스(대표 브라이언 정)와 MOU를 체결하고 비빔밥, 한식,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도시이자 세계 다민족 문화와 교역, 교류의 장인 LA에서 현지 교민의 초청으로 '한국문화 주간'행사에 참여해 비빔밥 500인분 비빔·체험·홍보 등을 전개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B2B와 B2C행사를 통해 현지의 10여개 기업·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LA 다운타운 무대포하우스 브라이언 정 대표는 지난 9월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한식의 세계화는 한국문화와 접목할 때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음식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지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심혈을 다하는 등 전통문화의 전도사로 '한스타일'의 본 고장 전주를 방문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브라이언정이 운영하는 사업공간을 활용해 한국의 맛과 멋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채우고 구성해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과 멋의 터전을 마련해 한스타일(한식·한지)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전주시 임민영 문화경제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LA에 전주의 비빔밥과 한지 등 전통생활 양식을 해외의 다양한 계층에 파급시키고 외국인 의 취향에 맞는 한스타일 상품전시, 홍보, 판매, 체험 등을 통하여 세계 속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각인시켜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해 주민 스스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심의후 '추진지원단'의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단 신

군산시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 공모

군산시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1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마을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환경정비 ▲태마가 있는 마을조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가꾸기를 통

해 주민 스스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심의후 '추진지원단'의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남원시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은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에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모유 수유전문가를 위

레강사로 초빙해 성공적인 모유수유법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지역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오는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제1기 임신 육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부안군, 위도서 5일 풍어 기원 '띠뽀놀이'

부안군 위도의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인 '띠뽀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82-2)가 음력 정월 초사흘인 5일 위도면 대리마을과 앞바다에서 열린다.

위도 띠뽀놀이보존회(회장 장영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우려해 섬주민과 귀성객만이 참가한 가운데 조

출하게 이번 행사를 치른다.

띠뽀놀이는 160~170년 전부터 전산물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위도 앞바다에 만산과 평안, 행복을 적은 소원문과 허수아비, 어린·선원을 태운 띠뽀(갈대로 엮은 작은 배)를 띄어 보내는 전통행사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정읍시,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경제 활성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정읍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김성기시장은 최근 정읍 제1시장과 제2시장, 신대인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물을 성수

품을 구입했다.

또한 시 공무원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매월 4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설 계수용품이나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떡메치고 연 만들고 ... 민속놀이 가족과 즐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박물관과 전통문화관,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설맞이 전통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일부터 17일까지 본관 로비와 문화체험관에서 입춘첩 찌르기, 떡메치기, 엮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개최한다. 본관 1층 문화사랑방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에도 다양한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 전통문화관(구 전통문화센터)은 1일 새해 신묘년 소원을 비는 소원문 쓰기를 시작으로 2일부터 6일까지 재미로 보는 웃점, 전래놀이 체험이 열린다. 설날인 3일에는 희망의 장수떡국 나누기, 3일과 4일에는 고구마 나누기, 연만들기 체험, 4일에는 가족 대항 웃놀이 대화와 가래떡 떡볶이 나누기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린다.

또한 전주 공예품전시관은 2일부터 6일까지 '나에게 보내는 신년맞이 다짐엽서 보내기' 행사를 비롯해 설맞이 특별전시와 퍼즐이 토끼띠 고객이벤트 행사도 마련한다.

한옥생활체험관에서는 4~5일 해남이 만두 만들기, 입춘첩 나누기행사 등을 진행한다.

최명희 문화관은 ▲행복을 만드는 복주머니 접기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최명희 서체 따라쓰기, ▲'문화관은 우체부' 엽서쓰기 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통술박물관은 3~4일 이틀간 전통 가양주 오감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통 가양주인 '호산촌 막걸리' 시음회를 가질 예정이며, 소주나리기 시연과 탁본체험도 술박물관 마당과 전시장에서 펼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김용철기자 knews@

전주박물관·전통문화관 등 설·대보름 문화행사 풍성

에 '빨간모자의 진실'과 '카(CAR)' 등 가족영화를 상영한다.

전주 전통문화관에서는 소원문 쓰기, 재미로 보는 웃점, 토정비결, 전통생활기구 체험, 연만들기 체험, 가족대항 웃놀이 대화행사가 열린다. 전주 전통문화관내 한벽극장에서는 ▲2일 '미움이' ▲3일 '쉬렉 포에버' ▲4일 '오션스' ▲5일 '맘마미아' 영화가 오후 3시에 상영된다.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에서는 설연휴기간(구정연휴 휴관)에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행사가 이어 정월대보름 국악공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연지홀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전주한옥마을에 들어선 전주 전통문화관을 비롯해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최명희문화관, 전통술박물관, 어진박물관

완주에 '사파이어 잉곳' 공장 들어선다

OCI, 도·군과 투자협약

OCI(OCI)가 전북 완주에 발광다이오드(LED)의 기초소재인 '사파이어 잉곳'(Sapphire Ingot) 생산공장을 짓는다.

OCI는 지난 3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완주군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투

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완주산업단지에 1000억원을 들여 '사파이어 잉곳' 생산공장을 착공해 8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400만mm 규모의 '사파이어 잉곳'이 생산될 전망이다.

OCI는 '사파이어 잉곳'을 상업생산

하면 올해 전 세계 생산량의 11%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OCI 관계자는 "우리가 적용할 LED용 사파이어 잉곳 생산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보다 수율과 효율 면에서 한 단계 개선된 것"이라며 "원가 면에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공장이 가동되면 100명가량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